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 구성 요인과 계승어 교육*

김 태 진

Abstract

Kim, Taejin. 2014. 2. 28. **The Structure Factors in Identity of Korean-American Korean Learners and the Heritage Language Education.** *Bilingual Research* 54, 99-122. This study looks into various factors of structuring identity of Korean-American Korean Learners and among them, analysis how their language identity is constructed and how its feature is expressed. Identity classification is categorized into three sections-national identity, cultural identity, and language identity-according to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survey with 33 questions is carried out to 129 students. The research result through factor analysis is restructured into 5 structure factors - cultural preference and pride, national sentiment and language affect & behavior, language cognition, community and peer group and cultural behavior. And among language identities, language effect and language behavior are reclassified as various factors, but 5 questions categorized as language cognition are deducted as one structure factor. Since the excellence of Hangeul and necessity of learning Korean are recognized, when we find ways of studying Korean more interestingly and practicing in real life, the effect of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and identity is doubled increasingly.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

【Key words】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Korean-American Korean Learners),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 언어정체성((language identity), 요인분석(factor analysis)

* 논문은 2013년 11월 2일 개최된 ‘이중언어학회 제17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들어가며

일반 성인 한국어 학습자와 달리 재미동포 학생들은 언어 능력 배양 외, 정체성 확립이라는 중요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계승어(heritage language)¹⁾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한다. 백종학·심진영(1994:37)은 미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정체성 확립의 필수사항으로 들었고 손호민(2001:15)은 재미동포 한국어교육의 첫 번째 중요성으로 정체성을 들었으며, Edward Chang(2004) 또한 한국어 교육이 단순 언어교육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역사의식과 자아의식을 심어주는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은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왕혜숙(1995), 김미옥(2003), 조철현(2002)과 같이 어휘·맞춤법·문법적 오류 등 형태적 차원에서 분석되거나 오류 연구를 통한 교육 방안 제시(김미옥(2001), 이지영(2005)) 중심이었다. 이보라미(2009)에서 담화 차원으로 확대하여 장르 격식성에 따른 쓰기 양상을 연구하였지만 언어적 시각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최근에 와서, 한국어 교육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안한나, 2006, 2008)과 한국어 숙달도와 문화정체감·문화적응 유형과의 상관관계(전희정, 2011) 연구를 통해 정체성과 한국어 수준이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혔으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 및 범주화 없이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정체성을 논하였다.²⁾

1) ‘계승어’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식적인 언어와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이는 제2언어(second language)나 외국어(foreign language)와는 다른 개념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의 공용어 이외에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며, 국적이나 언어 접촉, 구사능력과는 상관없이 가족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 비슷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 소수언어(minority language), 공동체 언어(community language), 가정 언어라고 사용하기도 하나 다른 용어들에 비해 계승어가 용어 자체로서 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김대희, 2012:36).

언어 학습을 유발하고 목표지향성을 갖게 하는 ‘학습 동기’가 언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DeCharms(1968), Garder & Lambert(1972)의 ‘동기 이론 연구’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³⁾으로 발전하며 학습에 있어 학습자 내면의 자율성 요인을 중요하게 부상시켰다. 재미동포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또한 전문적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지속적 동인을 학습자 내면에서부터 찾으며, 이를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정체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점검할 필요가 대두된다. 즉, 단순한 언어교육 차원이 아닌 정체성의 한 근간으로서의 한국어를 인지하고 사용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고는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인을 살펴보고 그 중 한국어에 대한 정체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들의 정체성 내에 있는 한국, 한민족,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체성 요소로서의 한국어의 특성과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재미동포 후세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위치와 목적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체성의 개념과 구분

‘정체성(identity)’⁴⁾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 변

-
- 2) 안한나(2006, 2008)는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희정(2011)은 국가, 민족, 언어, 문화정체성을 문화정체성으로 일원화하여 논하고 있다.
 - 3) Deci & Ryan(1985), Ryan & Connell(1989), Deci & Ryan(2000)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학습을 하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 무동기, 외적 조절 동기, 주입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재동기로 학습동기를 구분하였는데 이 중 확인된 조절은 자율성이 강한 외재 동기로서 학습에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김명숙, 2012:73~74).
 - 4) 정체성이란 라틴어 Identification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체성은 자기정의, 주체성, 자각, 존재증명, 최근에는 자아 정체감(또는 동일화)과의 관련으로 동일성이라고도 한다(박아청, 1993:23).

동성⁵⁾과 다중성⁶⁾, 구성성을 갖는 개념이다. 즉 개인의 경험과 사고방식,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다면적 자아 인식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이 때 한 개인은 타인과는 다른 여러 특징들을 살피며 범주화하는데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 언어정체성(language identity)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 분류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의 일부라는 감정적 의미와 가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한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Hogg & Abrams, 1988, 진경애 외 2010:35, 재인용)하는 것으로, 이것이 보통 국가, 언어, 문화로 세분화되어 연구되기에 사회정체성을 정체성 분류의 가장 큰 상위 개념으로 간주한다. 반면 홀(S. Hall)은 문화정체성을 가장 큰 상위 개념⁷⁾으로 하고 문화정체성의 핵심 요인으로 국가 정체성을 들고 있고 슐레진저(P. Schlesinger)는 문화정체성의 핵심 요인을 언어 정체성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이윤희 2008:645)는 주장을 할 정도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그리고 그 구분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다분하다. 또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 민족이므로 ‘문화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의 개념을 동일시⁸⁾하는 논의도 있다.

-
- 5) 이 변동성은 Erikson(1968)에서 그 특성을 밝히고 있는데 개인적인 정체성 문제가 사회적 맥락과 연결 지어 소개되고 발전된 개념(Edward, John, 2009)으로 그는 자아 정체성이 특정한 시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전 생애에 걸쳐서 발달한다고 하였다.
- 6) 정호영(2001:19)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여러 이론을 분석하여 내린 정체성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한 대상으로부터 성찰적으로 구성해낸 의미들의 집합이 된다. 그런데, 한 개인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대상들과 만나게 되므로 동시에 여러 개의 정체성들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들의 집합들(sets of meanings)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 7) 홀(S. Hall)은 ‘문화적 정체성’이란 정체성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특히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그리고 국가적 문화에 ‘속해 있음’으로부터 형성되는 정체성의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윤희 2008:645).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체성 구별은 Tajfel(1978)의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서 비롯되었다. 이 이론에서 그는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을 구별함으로써 개인은 독특한 인물로서의 개인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여러 집단의 구성원임을 반영하는 사회정체성도 형성한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이 사회정체성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십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자기 개념의 일부(성한기 2001:33)로 정의되는데 이는 개인이 직업, 학교, 국가, 민족, 언어 등 다양한 사회범주에 ‘소속’됨으로써 획득되고 인식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재미동포학생 정체성 구성요인을 살핌에 있어 사회정체성을 가장 큰 상위개념으로 파악하는 Hogg & Abrams(1988)의 논의를 따르고 그 하위개념으로, 특정 소속에 해당하는 국가, 민족, 언어, 문화와 관련된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1. 국가(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

국가정체성이란 특정 국가와 연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belief)과 감정(feelings)을 의미하며(Wiggins & Janden, 1994. 진경애 외 2010:36, 재인용) ‘국민정체성’으로도 불린다. 어떤 국가의 국민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정신적으로 도식화하게 되는데 이 고정관념(stereotype)이 국가정체성의 여러 신념적 측면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심리학적 차원에서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를 통해 특정 국가(국민) 혹은 자국(자국민)에 대한 자긍심, 우월감, 정체성의 현저성, 거리감, 포용성, 배타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정치사회학적 측면에서도 국가정체성의 성격을 구분한다. 이 구분은 정치

8) 이에 대한 예는 2.3. 문화정체성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체제, 정치이념, 시민권, 소수집단, 이민에 대한 정책 등과 관련하여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요건들은 무엇이며, 어떤 요인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이는 근대국가체제가 출현하면서 종족-혈통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시민-영토적 요인들도 국가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면서, 종족적 요인을 강조하느냐 시민적 요인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인식 유형⁹⁾이 달라진다(정기선 외 2011:49,50).

이렇듯 다양한 국가 정체성 개념을 박승리(2012:15)는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국가 정체성의 의미

Brubaker (1992)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nationhood)’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한 국가의 국민이 자기 국민에 대해 내리는 자기 나름의 규정
Stulman (1999)	국가에 의해 범위 지워진 정치적 공동사회 멤버들 간의 결속의 느낌
강영희 (1998)	국가정체성은 한 개인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Brubaker(1992)는 ‘국민됨’을 국가가 형성된 정치적, 종족적 요소에 집중하여 혈통 중심의 국민정체성과 시민 중심의 국민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강영희(1998)는 ‘민족’의 개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국가정체성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영어 ‘nation’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두 용어로 번

9) 이에 대해 Hochman et al.,(2008)는 아래와 같은 4가지로 그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Hochman et al.,(2008): 윤인진 외, 2011:152 재인용).



<그림 1> 시민적 요인과 종족적 요인에 따른 정체성 인식 유형

역되면서 국가와 민족이 혼용되어 사용한다. 국가와 민족이 거의 동일시되는 국가에서는 두 용어 사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다민족국가의 경우에는 양자의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다¹⁰⁾. 한편, 본고에서 살펴볼 재미동포 학습자에게 있어서의 국가인 ‘한국’은 ‘한민족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의미하므로 ‘국가’와 ‘민족’의 개념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2.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

민족정체성은 특정 민족이 가지는 고유특성이나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소속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민족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객관적 특성-종족적(유전적) 또는 문화적(생활방식·종교 등) 특징, 역사적 유래 등-과 민족적 차원에서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소속의식-민족의식, 동포애 등-의 두 측면을 함께 일컫는 것이다(정영훈 2010:3). 그런데 양자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로, 민족의식이 강해야 민족문화의 고유한 특성이 유지·발전되며, 문화적 동질성이 약화된 곳에서는 민족의식이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한편,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살펴본 결과 국가정체성에서의 사회심리학적 측면과 민족정체성에서의 주관적 소속의식이 공통적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혼용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감’¹¹⁾은 국민

10) 전자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고 후자의 경우는 유럽, 북미, 캐나다 같은 국가가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은 다문화사회가 급속도로 도래하면서 우리나라도 후자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11) 최초로 사회적 거리 개념을 적용하여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던 Bogardus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 이해(sympathetic understanding)의 상이한 정도로 개념화된다(Bogardus, 1933). 이러한 개념화는 객관적, 구조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

정체성에서, 동일 민족으로서 가지는 소속감과 자긍심 및 개인적 차원에 서의 동포애와 ‘정서적 소속감’은 민족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2.3.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

문화정체성은 인간 생활 방식의 총체인 문화에 대해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문화는 가장 일반적인 구분인 사회제도, 예술, 건축, 문학 등을 포함하는 인류 역사에 나타난 문명인 대문화,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행하는 관습, 전통, 실행인 소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Halverson (1985), Patric R. Moran, 2004:6, 재인용). 따라서 특정한 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대문화와 소문화를 포함하는 인간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제도나 산물, 사상, 정서적인 경향에 대해 함께 느끼고 공유하며 자신을 그 문화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범주화 시키는 것이다.

한편, Tajfel(1981)은 문화정체성, 또는 민족 정체성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집단의 감정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그 집단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된 개인의 자아 개념으로 된다고 하였고 Pinney(1990)는 집단 구성원이 민족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자기 동일시, 소속감, 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로 구성된다고 밝혔다(전희정 2011:16). 즉 문화정체성을 민족 정체성 개념과 유사하게 쓰고 있는데 고지영(2003) 또한 문화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여 집단에의 귀속 의식, 집단과의 내면적 연대감, 공동체 의식을 논하였다. 결국 같은 생활방식, 즉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 민족이므로 문화정체성을 의식주, 사고방식 뿐만 아니라 집단에게 느끼는 정서적 편안함, 동질 의식까지 모두 포함

개인이 특정 집단이나 계층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 (김상학, 2004:172).

하는 포괄적인 정체성으로 보고 있다.¹²⁾ 이에 본고에서는 민족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을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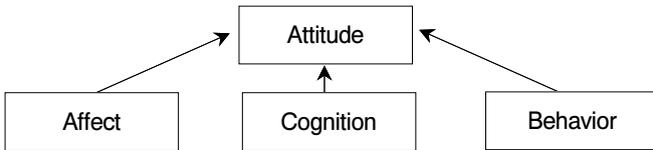
2.4. 언어정체성(Language identity)

‘언어 정체성’은 언어 또는 언어 행위에 귀속된 일련의 아이디어, 가치관, 정서 및 신념체계를 의미하는 것(Baker, 1992)으로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속한 그룹의 소속을 나타낸다고 한다(Ochs, 1993, 진경애 외, 2010:34, 재인용). 원래 ‘언어정체성’이란 Giles와 Johnson(1987)이 연구한 ‘민족언어 정체성이론(ethnolinguistics identity theory)’에서 사용되며 이론화되었는데 언어가 한 집단의 멤버십과 사회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표지(silent marker)라고 하였다. Heller(1987)도 언어는 집단 정체성을 상징하며 한 집단이 자기와 다른 집단을 접촉할 때 그 정체성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표상이 된다고 하였다. Giles와 Coupland(1991)는 이를 근거로 언어정체성을 두 가지 면으로 해석하였는데 한 면은 주관적인 것으로, 자신이 어느 특정 그룹에 속해 있다고 믿는 스스로의 인식이고 또 다른 면은 객관적인 것으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언어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 특정한 집단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진숙 2009:105-106). 즉 재미동포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스스로 인식함과 동시에 타민족이나 그룹 사람들에게 한국인이라고 특정 지워지는 것이라 하겠다.

학습자의 언어에 대한 태도가 언어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

12) 이를 측정할 대표적 도구로 Ahn(1991)의 ‘민족정체감 척도(KAEIS: 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가 있다. 재미동포학생 문화정체감을 연구한 전희정(2011)도 이를 참고로 포괄적 개념 차원에서의 문화정체감을 측정하였다.

여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Oakes(2001)는 언어태도를 감정(affect), 인지(cognition), 행위(behavior)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통합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그림 2>처럼 도식화하였다¹³⁾.



<그림 2> 언어에 대한 태도의 하위 구성(Oakes, 2001:30)

즉 언어태도는 감정(feelings,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싫어하는 등)의 정의적 측면과 언어에 대한 신념(beliefs)인 인지적 측면, 언어활동인 행위(act)적 측면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또한 Oakes는 Gardner와 Lambert(1972) 연구의 예를 들며 언어태도에 두 가지 범위-도구적과 통합적-가 있음을 말한다. 도구적 태도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영어지식이 직업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실용적 동기를 반영하며, 통합적 도구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나는 미국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와 같이 어떤 언어그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서적인 요인과 관련된 것이다(Oakes 2001:31~3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 문화정체성, 언어정체성은 벤 다이어그램처럼 서로 부분집합과 전체집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요인분석을 통해 재미동포학생 정체성에서는 어떻게 구성되며 언어정체성의 특징은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13) 이 구분은 일반적 태도 이론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분석에 기초한다(Oakes, 2001:30).

3. 연구 설계

3.1. 연구문제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 구성요인이 무엇인지, 구성요인 중 언어정체성의 특징은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 구성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 구성 요인 중 언어정체성의 특징은 어떻게 표출되는가?

연구대상은 재미한글학교 학생¹⁴⁾ 1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글학교를 1년 이상 다닌 학생으로 캘리포니아, 필라델피아 지역 거주 학생이 주를 이루고 LA, 보스턴, 애리조나 지역의 학생도 소수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특징	구분	학생 수	%
성별	남	59	45.74
	여	70	54.26
학년	4학년	5	3.87
	5학년	23	17.83
	6학년	25	19.38
	7학년	22	17.05
	8학년	31	24.03

14) 본 연구에서 언급되어온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 연구를 위해서는 미 전역에 약 1,000여개가 분포되어 있어 대표적인 재외동포교육기관으로 인정된 한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기에 연구 대상을 재미한글학교 학생으로 구체화시켰다.

	9학년	11	8.53
	10학년	9	6.98
	11학년	3	2.33
급수	초급	22	17.05
	중급	75	58.14
	고급	32	24.81
한글학교 다닌 기간	1~3년	40	31.00
	3~5년	32	24.81
	5~7년	38	29.46
	7~10년	17	13.18
	10년 이상	2	1.55
			계 129(100)

3.2. 연구 도구 및 방법

연구 도구인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조사 및 한글학교 교육 관련 설문이고 두 번째는 정체성 논문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행동기술문’으로 구성된 설문¹⁵⁾이다. 설문지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과 한·영 혼합 두 종류를 작성하여 배부하였다. 각 문항은 Ahn(1991)의 ‘민족정체감 척도 (KAEIS: 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 중 한국계로서의 정체감¹⁶⁾에 해당되는 19문항과 성한기(2001)가 개발한 ‘사회정체화 척도’ 19

15) 각 문항은 ‘아주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간 척도(scale)로 구분하였다.

16) 재미한글학교 학생의 정체성은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이다. 이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도미하여 미국에서 교육받음으로 인해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한글학교에서는 ‘한국계’의 정체성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시키고 있다. 이들 정체성의 구성요인을 밝힘에 있어 한국계와 미국인으로서의 두 분야의 문항을 혼합하여 요인분석 하였을 경우, 두 가지 요인, 즉 미국계와 한국계로만 분석되어(이 요인분석은 이미 Ahn(1991)에서 도출하였다) 각 정체성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어려우므로 한국계로서의 정체성 문항만으로 구성하여 그 안에서의

문항을 참고하였다. 성한기(2001)는 민족정체감에 해당하는 ‘소속감’ 관련 질문이 대부분을 이루었기에 ‘집단’을 모두 ‘한민족’ 내지 ‘한국’으로 바꾸어 문항 작성을 하였다. 그리고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을 밝힌 이석인(2011)에서 작성한 민족정체성 요인 7문항을 참조하여 작성한 38문항을 현지 한글학교 교사 2명에게 보내 검토를 받은 후 5문항을 삭제, 최종적으로 국가(국민)·문화(민족)·언어정체성 3개 영역에 걸친 33문항을 도출하였다. 문항 도출의 이론적 기준 및 분류는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작성 시 기초한 이론적 기준 및 문항

정체성	구분 기준	특징 및 내용	문항
국가 정체성 7	사회 심리학적 차원	국가(국민)에 대한 자긍심, 우월감, 거리감, 포용성, 배타성 등	1. 심정적으로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과 가깝다고 느낀다 7. 한국인과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12.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22. 내 가치와 신념은 대부분의 한국인과 비슷하다 25. 누군가 한국을 비판하면 내가 모욕을 느낀다 27. 한국 사람들은 내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정치사회학적 차원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8.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나는 한국인이라 생각한다
문화 정체성 15	객관적 특성	종족적(유전적) / 문화적 특징, 역사적 유래 등	4. 한국의 전통이 자랑스럽다 8. 한국음악이나 한국어로 된 노래 즐겨 듣는다 14. 내 정체성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17. 미국인들이 한국적 전통을 존중해 주길 기대한다 19. 자주 한국어로 된 TV나 영화를 본다 21. 한국 문화의 좋은 점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한다.

요인들을 도출해 내었다.

			29. 한국 문화가 훌륭하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가족과의 높은 의존성, 밀접성에 감사한다
	주관적 소속 의식	민족의식, 동포애	5. 한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 9. 미국 내 한국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13. 한민족 후손인 것이 자랑스럽다 20. 한 그룹으로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24. 내 친한 친구들은 거의 한국계 미국인이다 28. 한민족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32. 한민족에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언어 정체성	주관적 인식	언어를 통한 소속 의식	3. 한국어를 사용할 때 내가 한민족임을 느낀다
	언어 감정	정의적 측면	16. 한국어를 사용할 때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23. 사람 많은 곳에서 한국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 26.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11 언어 인지	언어에 대한 신념 및 인식	2.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힘이 들더라도 한국어를 계속 배울 것이다 11. 한글은 우수한 문자라고 생각한다 15. 한국어,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이중언어자가 되고 싶다
	언어 행동	언어 활동	31.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구적	자기중심적	33. 한국어를 잘하면 커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4. 연구 결과

4.1. 기술통계

요인 분석에 앞서 각 문항별 나타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한국계로서의 정체성 측정에 대한 기술통계량

문항	평균	표준편차
N) 17) 심정적으로 미국인보다 한국인과 가깝다고 느낀다.	3.97	.954
L) 한국어를 사용할 때 내가 한민족임을 느낀다.	3.90	.986
C) 한국의 전통(한복, 명절 등)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4.16	.992
C) 한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	4.04	.972
L)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3.96	1.116
N) 한국 사람들과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3.84	1.027
C) 한국음악이나 한국어로 된 노래 즐겨 듣거나 부른다.	3.46	1.465
C) 나는 미국 내 한국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3.65	1.144
L) 나는 힘이 들더라도 한국어를 계속 배울 것이다.	3.76	1.050
L) 한글은 우수한 문자라고 생각한다.	4.18	.858
N)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3.79	1.060
C) 한민족 후손인 것이 자랑스럽다.	4.16	.946
C) 내 정체성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798	.8433
L) 한국어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이중언어사용자가 되고 싶다.	4.44	.787
L) 한국어를 사용할 때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3.87	1.000
C) 미국인들이 나의 한국적 전통을 존중해 주길 기대한다.	3.70	1.152
N) 미국에 살고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4.24	.915
C) 자주 한국어로 된 TV나 영화를 본다.	3.63	1.459
C) 한 그룹으로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4.07	.966
C) 한국 문화의 좋은 점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한다.	3.90	1.030
N) 내 가치와 신념은 대부분의 한국인과 비슷하다.	3.64	1.032
L) 사람 많은 곳에서 한국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	4.00	1.031
C) 내 친한 친구들은 거의 한국계 미국인이다.	3.49	1.416
N) 누군가 한국을 비판하면 내가 모욕을 느낀다.	4.25	.878
L)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4.00	.959
N) 한국 사람들은 나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3.60	1.095
C) 한민족 단체에 참여한다.	3.86	1.343
C) 가족과의 높은 의존성, 밀접성에 감사한다.	4.10	.882
L)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	3.70	1.113
C) 한민족에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3.79	1.026
L) 한국어 실력이 좋으면 커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4.04	1.076
C) 한국 문화가 훌륭하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85	.952
L)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4.03	1.093

17) 본 연구에서 초기 연구 설계 시 범주화했던 정체성 영역 표시이다. 설문 문항 앞에 영문 약어로 구분하였으며, N은 국가 정체성, C는 문화정체성, L은

높은 평균을 차지한 상위 5개 문항을 살펴보면, ‘한국어·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이중언어사용자가 되고 싶다’(L: 4.44), ‘누군가 한국을 비판하면 내가 모욕을 느낀다’(N: 4.25),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N: 4.24), ‘한글은 우수한 문자라고 생각한다’(L: 4.18), ‘한국의 전통이 자랑스럽다’(C: 4.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어를 잘하고 싶은 욕구와 한국어에 대한 긍지가 강하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심정적 거리감이 매우 가깝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하위 5개 문항을 살펴보면, ‘한국음악이나 한국어로 된 노래를 즐겨 듣거나 부른다’(C: 3.46), ‘내 친한 친구들은 거의 한국계 미국인이다’(C: 3.49), ‘자주 한국어로 된 TV나 영화를 본다’(C: 3.63), ‘내 가치와 신념은 대부분의 한국인과 비슷하다’(N: 3.64), ‘나는 미국 내 한국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C: 3.65) 순이다. 이를 통해 재미동포 청소년의 생활 중 문화 환경과 교우 관계가 미국적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 의식은 높지 않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생활이 주말 한글학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학교와 관련된 것임을 주목하여 교육에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

4.2. 요인분석 결과

재미동포 한글학교 학생의 정체성 구성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회진된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1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850.255
	자유도	528
	유의확률	.000

KMO 측도¹⁸⁾를 살펴보면 0.918로 33개 문항 모두 변인으로 선정하는데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이 2850.255이고 이 값의 유의 수준이 0.000이므로 영가설은 기각된다. 따라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하고 공통 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공통성 (Communalities) 값 또한 33개 문항 모두 0.40 이상이므로 분석 변인이 되었다.

이어 회전된 성분행렬(Roated component Marix) 표를 살펴본 결과 33개 변인은 모두 다섯 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요인별 변인 및 요인 적재값¹⁹⁾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회전된 성분행렬(a)

문항	성분				
	1	2	3	4	5
C 미국인들이 나의 한국적 전통을 존중해 주길 기대한다.	.673	.199	.244	.201	.215
C 한민족 후손인 것이 자랑스럽다.	.672	.155	.389	.327	.084
C 한국 문화의 좋은 점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한다.	.663	.362	.059	.329	.146
N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642	.264	.246	.048	.178

18) 변수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인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KMO 값이 0.90 이상이면 좋은 것이며, 0.050 이하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김정렬, 윤지여 2004:276).

19) 해당 변인과 해당 요인간의 상관계수로 통상적으로 요인 적재값이 0.5이상이면 ‘아주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4개를 제외한 29개 문항이 0.5이상이므로 ‘아주 유의’하며, 나머지 4개 문항도 4.93~4.12로 유의한 정도가 높은 편이다.

C 나의 정체성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587	.247	.043	.159	.376
N 내 가치·신념은 대부분의 한국인과 비슷하다.	.585	.289	.061	.361	.397
L 한국어를 사용할 때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574	.343	.318	.277	.110
C 한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	.569	.098	.252	.553	.130
C 나는 미국 내 한국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	.539	.193	.309	.420	.354
C 한 그룹으로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537	.292	.224	.455	.056
C 한국 문화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535	.467	.218	.316	.167
C 한국의 전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526	.202	.483	.327	.116
N 누군가 한국을 비판하면 모욕을 느낀다.	.302	.729	.098	.016	.037
C 가족과의 높은 의존성, 밀접성에 감사한다.	.346	.651	.122	.298	-.021
L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	.079	.636	.397	.238	.327
L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305	.607	.482	.097	.178
L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한국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	.533	.591	.134	.092	.185
N 한국 사람들은 나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402	.541	.101	.186	.286
N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294	.493	.320	.084	.416
L 한국어 실력이 좋으면 커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098	.458	.452	.349	.078
L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180	.148	.750	.110	-.038
L 힘이 들더라도 한국어를 계속 배울 것이다.	.191	.014	.731	.119	.224
L 한글은 우수한 문자라고 생각한다.	.522	.214	.618	.049	.114
L 한국인과 의사소통은 내게 중요하다.	-.064	.481	.571	.324	.336
L 한국어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고 싶다.	.170	.233	.521	.073	.318
C 나는 한민족 단체에 참여한다.	.144	-.029	.077	.789	.247
N 한국 사람들과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418	.324	.118	.683	-.154
N 나는 심정적으로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과 가깝다고 느낀다.	.247	.232	.316	.658	.233
C 나는 한민족에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365	.382	.137	.545	.347

C 내 친한 친구들은 거의 한국계 미국인이다.	.279	.310	.068	.470	.467
C 자주 한국어로 된 TV나 영화를 본다.	.213	.072	.259	.154	.736
C 한국 음악이나 한국어로 된 노래를 즐겨 듣거나 부른다.	.504	.152	.183	.234	.514
L 한국어를 사용할 때 한민족임을 느낀다.	.387	.299	.397	.197	.412

*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13 반복 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음.

연구결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연구 설계 시의 정체성은 국가, 문화, 언어정체성의 3개 영역이었지만, <표 6>에 나타난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5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연구자의 시각으로 각 요인에 새롭게 부여한 요인명 및 해당 내용은 <표 7>과 같다²⁰⁾.

<표 7> 재미동포 한글학교 학습자 정체성 구성 요인

	구성 요인명	문항
요인 1	문화적 선호도와 자긍심	17:C, 13:C, 21:C, 12:N, 14:C, 22:N, 16:L, 5:C, 9:C, 20:C, 29:C, 4:C
요인 2	민족정서와 언어감정 및 행동	25:N, 30:C, 31:L, 26:L, 23:L, 27:N, (18:N), (33:L)
요인 3	언어인지	6:L, 10:L, 11:L, 2:L, 15:L
요인 4	커뮤니티와 또래집단	28:C, 7:N, 1:N, 32:C, (24:C)
요인 5	문화 행동	19:C, 8:C, (3:L)

* () 안 문항은 요인 적재값이 0.5를 넘지 않는 것임.

‘요인 1’은 주로 문화정체성 항목이 주를 이루며,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와 자긍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적 선호도와 자긍

20) 다양한 항목이 재범주화된 관계로 체계성과 일관성 있는 요인명을 부여하기는 힘들었다. 다만 Okes(2010)가 구분한 언어태도의 3개 하위항목인 감정, 인지, 행동을 설정근거로 삼아 요인명 간 등위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각 요인에 해당 하는 모든 항목을 포괄하는 요인명을 부여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예를 들면 요인명 2의 ‘민족정서와 언어감정 및 행동’은 33:L ‘한국어 실력이 좋으면 커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항목을 함의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하겠다.

심'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언어감정', '언어행동' 항목과 '한국을 비판하면 내가 모욕을 느낀다',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등 한민족이기에 가질 수 있는 친밀도를 느끼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 '민족정서와 언어감정 및 행동'으로 이름 지었다. '요인 4'는 한민족 단체 참여, 교우 관계와 관계된 내용이므로 '커뮤니티와 또래집단', '요인 5'는 그들이 생활에서 한국 노래와 한국 영상물을 선택하여 접하는 내용이므로 '문화 행동'으로 이름 지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다른 요인 모두 여러 정체성이 혼재해 있는데 반해 '언어정체성' 항목으로만 구성된 점이 두드러진다. 구체 문항을 살펴보면, 언어정체성 중 '언어인지'로 분류한 5개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같은 언어정체성 영역임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의 '언어감정'과 '언어행동' 부분에서의 문항은 다른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즉 한글에 대한 우수성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당위성은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감정 및 실천의 부분은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것이다. 매우 고무적인 것은 한글학교 교육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방법 및 실천의 장을 잘 마련해 줌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인지가 즐거움과 실천으로 연결될 때 서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는 그 학습 목표가 단순한 언어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확립 시각에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재미동포 한글학교 학생 대상 정체성 구성 요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구성 요인 중 언어정체성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처음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연구 설계 시의 정체성은 국가, 문화, 언어정체성의 3개 영역으로 나뉘었지만,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문화적 선호도와 자긍심, 민족정서와 언어감정 및 행동, 언어인지, 커뮤니티와 또래집단, 문화 행동’의 5개 요인으로 재분류되었다.

정체성은 이를 처음 사용한 에릭슨(Erikson)조차도 불확실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남겨두었을 만큼 그 구분과 개념에 있어 모호성을 가지고 있기에 재미동포 정체성을 논할 때도 구호처럼 주장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도 국가, 민족, 문화 등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분되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미동포 학습자 정체성 구성 요인은 학생의 선호도, 정서, 커뮤니티 등 기존 분류와는 달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재분류되었다. 이에 재미동포 정체성을 논할 때 형이상학적 차원보다는 그들의 생활과 감정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을 취할 때 교육적 효과를 가지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어정체성에 대한 탐색은 다른 요인과 달리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냈다. 초기 설계에서 구분한 정체성 영역 중, 언어정체성 내 ‘언어인지’에 대한 변인만이 재분류에서도 하나의 구성요인으로 범주화되었는데, 이를 통해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글에 대한 우수성과 긍지,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지가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언어행동’과 ‘언어감정’ 관련 문항은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기에 학생의 인지와 정서, 실천을 연결하는 교육을 연구하고 실시할 때 한국어 및 정체성 교육의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본고는 재미동포 학습자의 정체성, 그리고 정체성 차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분석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앞으로 정체성 구성요인과 학습자 변인과의 상관관계 및 언어정체성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지속되어 정체성을 초석으로 하는 재미동포 한국어 교육의 기능이 확립되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대회(2012).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층어 교육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3집, 국어교육학회. 35쪽~59쪽.
- 김명숙(2012). 조기영어 공교육이 영어학습에 대한 자기결정 동기 및 언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5(1)호, 한국초등교육학회. 71쪽~96쪽.
- 김미옥(2001). 맞춤법 오류에 관한 연구-재미교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1호, 이중언어학회. 331쪽~359쪽.
- 김미옥(2003).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별 언어권별 어휘 오류의 통계적 분석, <한국어교육> 14(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쪽~52쪽.
- 김상학(2004).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7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69쪽~206쪽.
- 김정렬·윤지여(2004). 영어 교육 연구에서 통계의 활용. 서울: 한국문화사.
- 박승리(2012). 귀국학생의 국가정체성 형성 실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아청(1993).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 손호민(2001).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미래 조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1)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79쪽~135쪽.
- 성한기(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호, 한국심리학회. 33쪽~48쪽.
- 안한나(2006). 재미교포(Korean-American)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어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한나(2008). 한국어 교육이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재미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4(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39쪽~167쪽.
- 왕혜숙(1995). 영어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어휘상 오류분석, <이중언어학> 12호, 이중언어학회. 383쪽~399쪽.
- 윤인진·송영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 연구> 23(1)호, 평화문제연구소. 143쪽~192쪽.
- 이보라미(2009). 한국어 학습자의 장르 격식성에 따른 쓰기 양상 연구: 재미교포 아동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석인·임영언(2011). 국제사회; 제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형성 요인과 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15(1)호, 국제지역학회. 525쪽~547쪽.
- 이윤희(2009). 문화정체성 형성요인에 관한 논구(論究), <한국사상과 문화> 50호, 한국사상문화학회. 635쪽~651쪽.

- 이지영(2005). 중급 재미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형태적 정확성 향상을 목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희정(2011). 재미교포 청소년의 문화정체감과 한국어 숙달도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기선·이선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비교한국학> 10(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45쪽~72쪽.
- 정영훈(2010). 민족 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정체성, <한민족연구> 9호, 한국민족학회. 1쪽~29쪽.
- 정호영(2001). 민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조철현 외(2002). 한국어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문화관광부 2002년도 국어정책 공모과제 연구서.
- 진경애·한중임(2010).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공교육이 학생들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37(2)호, 한국초등교육학회. 31쪽~55쪽.
- 최진숙(2009). 대학생들의 영어능력과 언어정체성인식과의 관계, <언어연구> 26(2)호,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103쪽~109쪽.
- Chang Edward(2004). 재미동포 2세 교육의 방향과 미래상, 제 1차 국제언어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호. 53쪽~82쪽. 서울: 상명대학교.
- Bonny Norton(2000). *Identity and language learning: Gender, Ethnicity and Educational change*. London: Longman.
- Edwards, John(2009). *Language and Identity: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igh Oakes(2001). *Language and National identity; Comparing France and Swede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s Co.
- Patric R. Moran(2004), 문화교육(정동빈 외 옮김), 서울: 경문사.

김태진(Kim, Taejin)

(사)한국문화화국제교류운동본부(이화여대 박사과정 수료)

121-81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201호

전화번호: 02-2285-1070

전자우편: jinedu21@naver.com

접수일자: 2013년 12월 20일

122 이중언어학 제54호(2014)

심사(수정)일자: 2014년 1월 22일

게재 확정: 2014년 2월 5일